



지난 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대만에서 개최된 제11회 타이베이 국제도서전을 다녀왔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2년 대만과의 국교단교 이후, 최근 중국어권에 일고 있는 한류의 영향 등 대만 및 중국어권에 대한 적극적인 저작권 수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2년에 처음으로 국가관을 구성하고 5개의 부스를 임차하여 6개사와 공동으로 참가한 바 있다. 과거 기반을 바탕으로 발전한 2003년의 도서전은 참가사와 전시대 규모가 두 배 정도 늘어났다. 우리나라에서 모두 12개 부스에 11개 참가사가 전시회에 참여한 상황이니 상당한 수출성과를 거둔 셈이다. 주로 아동도서(전집류 포함), 한국문화 소개(요리, 엔터테인먼트 등), 기술 과학(컴퓨터), 만화류, 종이접기, 한국어에 대한 저작권 상담 및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불황의 여파로 저작권 거래는 작년보다 실적이 줄어들었고, 이는 한국관의 참가가 두 번째이고 1년 간 신간서적이 그리 많지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전시장臺北世界貿易中心, Taipei World Trade Center은 서울 코엑스의 2.5배(1관 국내-국제전시관, 2관 만화관, 3관 일러스트레이션관을 합칠 경우) 정도의 규모이고, 유럽 및 미주지역의 참가사가 많은 편이었다. 체코가 주제국가로서 25개 부스를 구성하면서 체코 문화와 예술, 일러스트레이션 및 유명작가의 사인회, 체코전통의 꼭두각시 인형극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준비하기도 했다.

타이베이도서전은 전체적으로 아동출판사의 참가가 활발했다. 특히, 평상시 서점에서 도서할인이 되지 않지만, 도서전 기간 중에는 서점의 묵인하에 20퍼센트에서 많게는 70퍼센트까지의 할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주말에 구름같이 몰려든 관람객으로 인해 전시장은 떠밀려 다닐 정도로 북적거렸다. 타이베이 시 인구가 26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25만 명 이상의 관람객 수는 놀라운 것이며, 도서전에 대한 연일 계속되는 방송과 신문의 취재 및 보도도 인상적이었다. 도서전의 일반인 입장료는 NT\$70 (원화 2,500원), 군경, 학생 할인권은 NT\$30 (원화 1,100원)이었다.

하루는 저녁에 시간을 내어 24시간 영업을 하는 서점誠品書店, Eslite Book Store을 갔었는데,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서점에서 책을 읽고 구매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서가의 배치도 비교적 넓은 편이어서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였고, 고객들이 책을

본 후 다시 서가에 잘 꽂아 놓기 때문에 매장 관리인도 거의 없어 보였다.

대만은 자체시장 뿐 아니라 중국어권 출판시장의 또 하나의 진입 구로써 중요성이 있으며, 저작권 및 출판수출의 증대와 더불어 인적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양적인 정서상, 사무적인 관계 이후의 인적교류도 사업관계를 넓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아동도서를 중심으로 한 중국어권 저작권 수출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다. 제일 시급한 문제는 정보공유에 있는데 선인세 부분과 그림사용료(CD제 공문제) 등의 하한선규약이 필요하며, 표준 저작권거래 계약서양식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문화 및 출판문화의 대만 및 중국어권 독자층 개발 및 저작권 수출의 활로 모색과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장조사, 출판현황, 서점정보 및 출판사 정보의 획득 및 최신화가 요구되고, 최근 일고 있는 한류와 관련한 출판저작권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주력할 필요성도 느껴진다.

대륙과의 양안문제 및 '하나의 중국' 정책의 일환으로 대만은 1970년대 이후부터 외교력을 잃은 상태다. 대만정부는 도서전과 같은 민간교류에 힘을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하는 편이다. 해외에서 초청한 20여 명의 VIP에 대해 만찬, 방문 및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도서전 기간 중 행정원 신문국 출판사업처의 공무원들이 Business Center에 상주하며 행정적인 지원 및 관람객 안내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